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 (요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4.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복 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상 세출은

전체 본예산 25조 2,373억 5,500만원 대비

1조 8,451억 8,400만원이 증액된

27조 825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첫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p.11)은 키오스크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화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1억 6,600만원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 목적의 유사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키오스크 UI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에 동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등 4개 과기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p.22)은 AI+ST 특화 분야의 국내외 박사후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집단·융합연구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3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AI+ST 분야의 박사후연구원 지원의 경우, 현재 AI 관련 및 해외유입 박사후연구원 수를 고려할 때 효과성 및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고, AI+ST 융합·집단연구 지원의 경우, 각 연구기관 간 융합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p.42)은

기업 등이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하여

도전적인 AI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연구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50억원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조속히 사업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지연, 집행부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AI 인재양성 기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AI컴퓨팅 자원활용 기반 강화’(p.47)는 국내 AI컴퓨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GPU 서버 확충 및 임차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조 6,194억 3,800만원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GPU 서버 확충의 경우, 민간 기업과 서버 배치 관련 합의를 조속히 수행하고 유사 GPU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GPU 임차의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감안하여 예산의 규모 적절성 및 재편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조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섯째,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p.54)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 모델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300억원의 추경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공동구매의 경우 공동구매의 특성상 수요자 간 조정, 저작권자와의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AI반도체 실증지원’(p.58)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인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AI 반도체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억원의 추경안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유사한 신규 실증 사업의 사전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바우처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추경안에서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이 연내에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연구개발특구육성’(p.69)는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AI 분야 딥테크 기업을 선별하고 기술 검증 등 기업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억원의 추경안이 증액되었습니다.

AI 분야 시장의 성장세와 관련 기업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과제 단가와 지원 과제 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은 AI 분야에 지원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활용성, 파급효과 등 AI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과제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